

# 코로나19 직격탄... 전남 3월 공연계 매출 '0원'

### 전남지역 한차례도 안열려...광주도 3건 126만원에 그쳐 하반기 공연도 미지수...생활·운영자금 등 긴급 지원 필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남 지역 3월 공연계 매출액이 0원을 기록했으며 광주 지역 역시 126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비 부족과 함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단체, 예술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공연예술통합전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1~31일 집계된 전남 지역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국악 등) 건수는 0건으로 매출액 역시 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2건, 4249만5000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공연 성수기인 지난해 12월은 30건, 3억7514만원이었다. 올 1월에는 8건, 5904만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공연 취소·연기가 시작된 지난 2월 매출액은 2건, 8977만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은 3건, 126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3월 매출액은 19건 8844만9000원이었으며 연말콘서트 등이 이어지는 성수기 12월은 41건 8억1073만원이었다. 올 1월의 경우 19건에 1억961만5000원, 2월은 10건에 5323만6000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전남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 사태로 3월 공연 총매출이 '0'인 지역은 17개 특·광역시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

은 대구와 경북은 물론 강원,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충북 등이 3월 공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30년가량 활동해온 A극단은 지난 2, 3월 상시 공연을 한 건도 올리지 못해 최근 수익이 전무하다. A극단 대표는 "극단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극장 운영도 함께 해야하니 두배로 힘들다"며 "극장같은 경우 대관공연도 취소된 상태고 순회공연, 초청공연도 모두 취소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말 뿐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 사례조사 메일 한통 받은 것이 전부"고 덧붙였다.

공연계 관계자 역시 "3월 공연을 올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이미 전단·티켓 제작은 물론 광고마저 끝낸 상태여서 손해가 크다"며 "하반기에 공연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연극협회 측은 "연극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뛰는 연극인들도 있는데 다른 수입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공연을 올릴 생각이지만 진정될 기미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통합전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남지역 공연 매출액은 0원, 광주지역은 126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푸른연극마을 공연 모습.

가 보이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전했다.

연극협회 측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극인들의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신속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

를 본 공연예술인을 위해 약 21억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관람료 할인 지원에 240억 원을 배정하고 소극장 200곳에 최대 6000만원의 기획 제작비 지원, 공연예술단체 160곳에 최대 2억 원의 운영비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들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2019 광주문화재단 백서' 발간 재단 성과·현황·발자취 담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2019년 한 해의 성과와 이야기가 담긴 '2019 광주문화재단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9번째 발간된 이번 백서에는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재단의 한 해 발자취가 정리돼 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지원, 문화정책, 시민문화,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문화공간, 홍보로 구성돼 있으며 딱딱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또한 사업뿐 아니라, 경영지원·회계·기획·홍보부서에서 진행한 업무 내용도 수록해 문화재단의 총체적인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백서는 유관기관, 광주 주요 대학 및 문화시설 등 162곳에 배포됐으며 올해부터는 각 구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16곳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그간 발간된 백서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자료' 코너에서 열람신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19 시립미술관 애뉴얼 리포트' 전시·교육·행사·보도 등 한눈에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2019년 미술관 활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광주시립미술관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했다. 200페이지의 분량의 책에는 2019년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창작지원, 소장품, 언론보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전시는 '맛있는 미술관전', '남도미술 뿌리전' 등 화제를 모았던 기획전과 2019 문화수도광주전(영국 런던) 등 국외 문화예술기관과의 문화예술 교류 상황을 소개했다. 또 '꿈을 그리는 미술관', '고고 숲속으로' 등 체험, 감상, 활동이 어우러진 어린이전시도 함께 수록했다.

교육 분야는 192강좌 4130명 수강한 미술관 문화센터 실기강좌와 분관 미술관이카데미 강좌, 하정음 미술관 인문학강좌, 런치토크 등의 성과를 수록하고 작음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해설이 있는 영화프로그램 등 전시와 별개로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작가 육성정책으로 운영중인 북경창작센터, 청년예술인지원센터,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운영과 지난해 수집한 소장품 134점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그밖에 지난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관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설, 미술관 교육 등 관람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광주시립미술관 발전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020 연극의 해' 집행위 출범...단순 행사·축제성 방식 지양

### 위원장 심재찬, 임인자 연출가 등 18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위원장 심재찬 연출가)가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집행위는 연출가인 심재찬 위원장과 연출, 연기, 무대기술, 극작, 공연기획 등 각 분야 전문가인 18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회는 광주 출신 임인자 연출가, 강윤지

극단 'Y' 연출가, 공재민 배우, 김혁수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 박세련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대표, 박승규 극단 '백수골' 예술감독 등이다.

집행위는 지난달 20일과 26일 1, 2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예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단순 행사나 축제 방식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연극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행위는 또 코로나 상황을 감안, '2020 연극의 해' 시작을 알리는 선포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극의 해의 의미와 방향을 알리고 연극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SNS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와 함께 '핵심어포기 이어달리기(릴레이 해시태그)' 또는 '짧은 온라인 연극 또는 독백 게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호남 16개 사찰 불단조사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불단(佛壇)은 사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하고 의례에 필요한 기물을 두기 위해 제작된 구조물이다. 그러나 불단은 건축물 일부로 인식돼 불상이나 불화와 비교하면 관심을 덜 받았다. 또한 주재료가 목재라 타에 수리가 어렵고 변형되기 쉬웠다. 병충해와 화재에도 취약해 그동안 보존과 복원을 위한 원형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대상으로 목판에 이어 불단을 선정해 5년간 조사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일단 올해는 전라도 16개 사찰을 대상으로 불단의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수미단(須彌壇)'이라고도 하는 불단은 불상 봉안과 예배 방식에 따라 제작 기술이 발전했다. 추대, 나무로 만든 패인 목



경북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859호)

패(木牌)와 일체를 이루는 불단은 당대 시대상을 반영한 문양과 도상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어 역사 미술사 분야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크다.

조사 대상 사찰은 정밀 실측,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이 시행된다. 손상 현황 지도 제작 등 과학 조사와 불단의 역사와 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병행된다. 문화재청은 추후 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유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청춘마이크' 공연팀 410개 선발

올해 거리공연(바스킹)을 진행할 '청춘마이크' 공연팀을 41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난해 276개 팀보다 134개팀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 또한 지난해 20억 원보다 47억원 늘어난 67억 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410개 팀은 한번 공연할 때마다 인원에 따라 70~21만원 공연료를 지원받는다. 연간 5회 공연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비도 지원받는다. 공모는 4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부는 또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은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1만2000명으로 지난해 5500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지원 예산도 166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심의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데 상반기 접수는 지난해 마무리돼 심의 중이며, 늦어도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